

노사발전재단, 7월 제주노동포럼 개최

- '생산성'과 '워라벨' 두 마리 토끼 잡는 제주지역 맞춤형 해법 모색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상용)와 공동으로 7월 1일(수) 오전8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이다.

이번 포럼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워라벨(일·생활 균형)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을 현장에서 찾는 자리다.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이익을 얻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는 배규식 박사(전 한국노동연구원장, 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장)가 맡았다. 배 박사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제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주노동권익센터 등 제주 노·사·민·정 핵심 주체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워라벨을 선사하는 노사상생의 출발점"이라며,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터혁신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책임자	센터장	송왕준 (064-702-4503)
	제주증장년내일센터	담당자	책임컨설턴트	양훈석 (064-702-4505)